

南道서 펼쳐지는 수목 향연... '황해 르네상스' 꽃피우다

윤재갑 총감독 선정...제4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윤곽

'황해를 넘어서' 주제...동시대 관통하는 다양성·생명력 선포 인류 보편문명으로서의 '근원·확장·글로벌화' 3개 섹션 구성

올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동아시아 문명의 '황해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전남문화재단은 오는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6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 진도 소전미술관·남도전통미술관,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땅끝순례문학관 등에서 제4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개최한다.

'황해를 넘어서 Somewhere Over the Yellow Sea'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윤재갑(56) 그라운드 서을 디렉터가 맡았다.

윤 총감독은 "올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 협력으로 연결된, '21세기 환황해 문화벨트'를 꿈꾸고 있다"며 "지구상에 거주하는 70억 인류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금, 순수한 문화적 주제는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

적인 중심과 주변의 구분 역시 무의미해졌다"고 밝혔다.

'황해'라는 바다는 국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무력화된, 중립적이고 탈영토 문명의 공간이다. 중국 중심의 대륙문명이 아닌 한국과 일본, 중앙아시아와 인도 등 수많은 민족들이 수천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인류 보편문명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타자로서의 서구' 뿐만 아니라 '타자로서의 중국'마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수목'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기존의 '중심' 해체가 아닌 '다양한 중심'의 부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말한다.

올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행사는 크게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은 '수목의 뿌리와 근간'이다. 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에서 공재 윤두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수목의 뿌리와 근간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환기시키는 '최고의 수목 巨匠전'을 펼쳐낸다.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동시대 수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붓의 향연'이 펼쳐진다.

두 번째 섹션 '수목의 줄기와 확장'은 진도 소전미술관에서 채색수목 작품을 통해 한국·중국·인도의 다양한 수목 작품의 기법과 역사, 흐름을 통합적 관점으로 구성하는 '수목의 확장: 채색 수목'을 보여준다.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소치에서 출발해 한국 근·현대 수목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화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수목의 줄기와 갈래를 확인할 수 있는 '채움과 비움: 여백의 미'를 감상할 수 있다.

세 번째 섹션 '수목의 글로벌화'는 목포문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 전경

화예술회관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영상 작품 등 역동성을 강조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 세계 수목의 여러 유형과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자연과 움직이는 수목'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같은 시기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BLACK(가제)'이라는 주제로 녹우당(해남), 윤림산방(진도)에서 출발해 유럽 대가 프란츠 클라인, 피에르 솔라주까지 연결된 수목의 미학을 탐색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이밖에 전 도민 참여 분위기 제고와 지역

문화진흥 및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시군 수목기념전'과 미술계 주요인사, 개막식 주요 내빈 등을 대상으로 한 '프리뷰', 대형 한지를 활용한 '수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연계 및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수목을 통해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동시대를 관통하는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회를 거듭해 가면서 콘텐츠의 고도화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 도민 참여 분위기 제고와 지역



G.MAP '오를랑' 전시, 포항 순회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이 광주비엔날레 30주년 특별기념전으로 개최한 '오를랑 하이브리드' 전시가 순회전을 갖는다.

21일부터 5월11일까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신체미술의 대가 프랑스 여성 거장 오를랑의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기술이

갖는 무한한 장르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오를랑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기술 매체를 활용한 예술적 확장과 그 공생의 목소리를 제시한다.

포항 전시에서는 작가 자신이 예술을 표현하는 창구이자 플랫폼이 된 '오를랑 포스트휴먼'을 비롯해 젠더, 기후위기 등 여러 주제의 작품을 선보

인다.

또 포스트휴먼을 넘어 전 지구적 미래의 기후 위기에 처한 동물과 인간의 신체 확장과 관련해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담은 신작을 만날 수 있다.

이경호 G.MAP 센터장은 "광주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가 타지에서도 공감을 얻기를 바란다"며 "기후위기와 관련된 메시지, AI와 기계,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주제가 폭넓게 전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의 편린으로 그려낸 환희의 순간

양홍길 개인전, 내달 16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기쁨, 슬픔, 분노, 고독 등 수많은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매 순간 직면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독자적인 색채와 형상으로 화폭에 풀어낸 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양홍길 작가 개인전 '환희歡喜'가 다음달 16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신년 전시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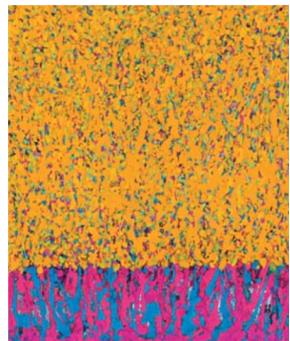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색을 인간의 감정에 대입, 감정의 색채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풍부하고 화려한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에서 감성적인 회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스며있는 안정감, 따스함, 그리고 공간적 미학은 시각적 쾌활함과 깊이감을 선사한다.

작가의 추상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떤 장소가 떠오른다. 그가 보여주는 색과 터치에 우리가 상상해 왔던 무릉도원이다.

그곳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선한 바람이 불며, 시원한 폭포가 쏟아지는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색채가 주는 강렬한 이미지와 겹겹



'꽃향기 꿈꾸는 어느날'

이 쌓인 색의 레이어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구상한 아름다운 환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뻐낸다.
- 3 운전자와アイコン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